

제 11 회

儒學大學

순성놀이

- 일시 2020. 06. 22(월) 15:00~19:00
- 장소 :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 흥인지문

주최 : 성균관대학교 / 유학대학 / 養賢齋

한양도성과 순성놀이

한양 도성은 못 사람들에게 반가운 존재였다. 보부상들은 제 자식을 배부르게 하려 성문을 제 집 마냥 나다녔다. 성 밖은 위험한 곳이다. 제 집에 조금이라도 일찍 돌아가기 위해 욕심을 부린다면 더 위험했다. 짐승들이 그르렁 거리는 숲 속을 지나고, 차디차고 거친 물살을 헤치며 제 집을 찾아갔다. 십리 밖에서도 제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도성을 보일 때, 여행자들은 가던 길을 잠시 멈췄다. 그들은 자식들이 자기를 반기는 상상을 했다. 오른손은 북적거리는 장터에 들려 약과를 사갈 돈이 있는지 품속을 헤집었다.

성 둘레는 원래 사람이 많이 지나지 않아 위험한 곳이다. 혹시나 도망친 도적이 있을까 싶어 포졸들은 끊임없이 도성을 돌아다녔다. 추운 겨울이 오면 포졸들은 추위에 떨었다. 추위로 인해 포졸들의 미간에는 주름살이 가득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들의 주름살도 잠시 부드러워졌다. 매년 봄과 여름마다 한양사람들은 서로 짝지어 성 둘레를 돌았다. 사람들이 떠들썩거리며 지나가는 곳에는 그늘진 곳이 없었다.

한양도성은 1392년에 건국하여 1910년까지 지속된 조선왕조의 수도였던 한성부를 둘러싸고 있는 조선시대의 성곽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도읍을 둘러싼 성곽과 문을 지칭하며 넓은 의미로는 성곽과 그 안의 공간을 가리킵니다. 한양도성에는 4대문과 4소문을 두었는데 4대문은 흥인지문·돈의문·승례문·숙정문이며, 4소문은 혜화문·소의문·광희문·창의문입니다. 이 중, 돈의문과 소의문은 멸실되었습니다. 또한 도성 밖으로 물길을 잇기 위해 흥인지문 주변에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을 두었습니다. 평균 높이 약 5~8m, 전체 길이 약 18.6km에 이르는 한양도성은 현존하는 전 세계의 도성 중 가장 오랜기간(1396~1910, 514년) 도성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순성놀이는 입신양명의 꿈을 안고 상경한 선비들이 도성을 돌며 급제를 빌었던 풍습에서 출발했습니다. 한양도성은 600여 년 간 서울의 율타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도성민들은 도성을 돌며 소원을 빌기도 하고, 도성 안팎의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정조 때 학자인 유득공은 서울의 세시풍습을 기록한 『경도잡지』에서 순성놀이를 “도성을 한 바퀴 빙 돌아서 안팎의 멋진 경치를 구경하는 놀이”라고 설명하였고 그의 아들인 유본예(1777~1842)도 『한경지략』에서 “봄여름이면 한양 사람들은 짝을 지어 성 둘레를 한 바퀴 돌며 안팎의 경치를 구경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1회 순성놀이(2015. 5. 10)

퇴계인문관 -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제2회 순성놀이(2015. 10. 31)

퇴계인문관 - 말바위전망대 - 숙정문 - 백악마루 - 창의문 - 부암동

제3회 순성놀이(2016. 4. 19)

송례문 - 남산 팔각정 - 남소문터 - 장충체육관 - 광희문 - 동대문

제4회 순성놀이(2016. 11. 5)

송례문 - 배재공원 - 정동길 - 경교장 - 인왕산 순성길 - 창의문

제5회 순성놀이(2017. 5. 13)

퇴계인문관 -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제6회 순성놀이(2017. 11. 11)

퇴계인문관 - 말바위전망대 - 숙정문 - 백악마루 - 창의문 - 부암동

제7회 순성놀이(2018. 5. 12)

송례문 - 남산 팔각정 - 남소문터 - 장충체육관 - 광희문 - 동대문

제8회 순성놀이(2018. 11. 3)

송례문 - 배재공원 - 정동길 - 경교장 - 인왕산 순성길 - 창의문

제9회 순성놀이(2019. 5. 3)

퇴계인문관 -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제10회 순성놀이(2019. 11. 2)

창룡문 - 장안문 - 화서문 - 수원행궁 - 서장대 - 팔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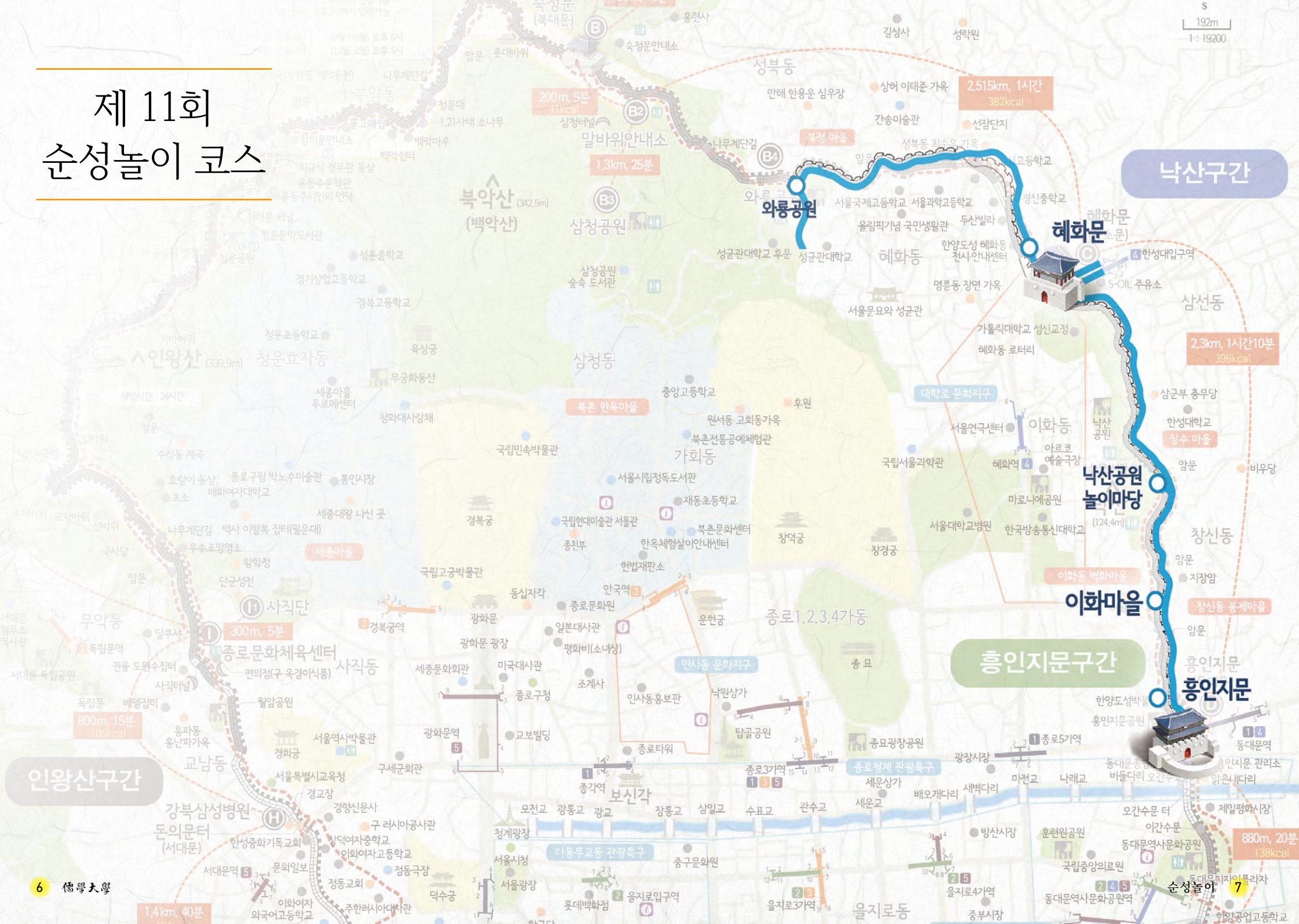
제11회 순성놀이(2020. 6. 22)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 흥인지문

제11회 순성놀이 일정(2020. 6.22)

15:00~15:30	집합 및 출발 퇴계인문관 정원 앞
15:30~18:00	순성 와룡공원 기념사진 촬영, 성곽길 탐방 (와룡공원-혜화문-낙산-이화마을-흥인지문)
18:00~19:00	만찬 일품식사(음주 및 회식 불가)
19:00	해산

제 11회 순성놀이 코스



인왕산구간

낙산구간

흥인지문구간

01 와룡공원



매해 봄이 오고 별이 잘 드는 언덕에서 부터 매화,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같은 화사한 봄꽃이 피기 시작하면 많은 연인들과 가족들이 와룡공원을 찾아옵니다. 한양 도성 성곽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는 다소 가파르지만 수목이 우거져 나무그늘이 많고 곳곳에 쉬어갈 만한 벤치와 정자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균관대 캠퍼스 커플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02 삼청각

와룡공원과 삼청공원 사이에는 벚꽃으로 유명한 산책로가 있습니다. 삼청공원에서 삼청터널을 지나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삼청각이 나옵니다. 한때, 요정정치 중심이었던 삼청각은 남북회담과 한일회담, 여야 정치인들의 협상 등 근현대 정치사의 굵직한 사건들과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현재는 공연장과 한식당, 찻집 등이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며 서울시의 위탁을 받은 세종문화회관이 그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03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의 간송은 우리나라 고미술의 연구와 보존에 힘 쓴 전형필의 아호라고 합니다. 전형필은 청자상감운학문매병, 신윤복의 미인도, 훈민정음, 난중일기 등의 민족의 문화재를 모으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최초의 사립 박물관인 '보화각'을 건립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그의 생전에 대중을 상대로 전시를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미술관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소유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04 심우장

심우장의 심우(畝牛)는 불교의 선종이 깨달음의 경지를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한 데서 따 온 것이라고 합니다. 한옥에서는 드물게 북향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심우장은 끝내 일본에게 굴하지 않았던 만해 한용운의 삶을 닮아있습니다. 남향으로 집을 짓게 되면 조선총독부를 마주하게 되니 이를 거부하고 차라리 북향으로 집을 지은 것이지요. 만해 사후에는 외동딸이 이 곳에서 살다가 후에 만해 사상연구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만해의 글씨, 연구 논문집, 옥중 공판기록 등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05 혜화문



음기가 강하게 흐른다는 이유로 북대문인 숙정문(肅靖門)을 닫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자 양주나 포천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은 동소문인 혜화문(惠化門)을 주로 이용하여 도성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처음 건축될 때 이 문은 홍화문(弘化門)이라고 불렸지만, 성종 4년에 창경궁(昌慶宮)을 새로 건립하면서 창경궁 동문에 홍화라는 이름을 내어주고 혜화문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때 일제가 전차길을 내면서 흥에만 남아있던 혜화문을 완전히 헐어버렸으나, 서울 성곽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1992년에 복원되었습니다.

06 낙산

서울 종로구와 성북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입니다. 조선시대 한양 성곽이 낙산 능선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서쪽의 인왕산(仁旺山)과 동서(東西)로 마주보며 대치하는 산으로, 높이는 약 125m입니다. 산 전체가 노출된 화강암(花崗岩)으로 이루어져 있고 산 모양이 낙타(駱駝)의 등과 같다고 하여 낙타산 또는 낙산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숲이 우거지고 아늑한 산으로 산책길로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문인들이 낙산 인근에 별장을 짓고 살았습니다. 인평대군이 거처했던 석양루(夕陽樓)와 이화정(梨花亭), 일옹정(一翁亭), 백림정(柏林亭) 등의 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단종이 수양대군(首陽大君, 세조)에 의해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를 떠날 때 단종비 정순왕후(定順王后)는 단종과 이별하고 이곳 낙산에 은거하며 살았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07 낙산공원

카톨릭대 뒷길에서 낙산공원으로 오르는 길은 이번 순성놀이 구간 중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성벽의 바깥쪽에 나 있는 봄꽃의 길을 따라 걷다보면 왼편으로 고즈넉한 장수마을의 지붕들이 보이고 굽이치는 높은 성벽은 그 뒤에 올 풍경에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비록 많은 시간을 머무를 수는 없지만 이화 벽화마을의 아담함도 만끽하다보면 어느새 전망대에 올라져 멀리 남산까지 시야가 환하게 트입니다.



08 장수마을

60세 이상의 노인이 많아 장수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곳에 대규모의 재개발이 계획되었으나 주민투표로 전면철거방식 대신 주민참여형 마을재생 사업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주민들이 직접 집을 단장하고 골목길을 정비하여 지금처럼 산뜻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변모하였습니다.

09 각자성석



각자성석(刻字城石)은 축성과 관련한 글을 새겨 넣은 돌로 그 내용은 구간명과 구간별 축성 담당 군현(郡縣)명(조선초기), 감독관과 책임기술자의 이름, 날짜 등(조선후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양도성 전체 구간 중 동대문성곽공원 옆에 가장 많은데 성곽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각자성석들을 이곳에 모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와룡공원에서 혜화문으로 가는 길, 혜화문에서 낙산공원으로 가는 길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하니 순성동안 몇 개나 찾을 수 있는지 세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0 이화마을

낙산공원 전망대에서 성벽 바깥길을 따라 내리막을 걷다보면 잠시 뒤 조그마한 암문 너머로 좁은 골목길이 하나 보이는데, 이 암문 너머로 들어가면 느긋하게 별을 즐기기에 좋은 노변 카페들과 다채로운 벽화, 빈터의 조형물들이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곳이 바로 서울 최초의 벽화 마을인 이화 벽화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벽화와 조형물들은 단순히 지역의 시각적 환경만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동네 역사와 주민의 기억을 수집하고 정리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토끼 그림이나 천사의 날개 등은 이화마을을 대표하는 벽화들이니 시간이 허락된다면, 앞에서 사진 한장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낙산공원으로 오르는 길에 서면 한적한 마을과 북적거리는 도시의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한여름에는 바람이 솔솔 불어온다고 합니다.



11 동대문성곽공원

11 동대문성곽공원

내리막길을 따라 걷다보면 어느새 눈앞에 흥인지문이 나타납니다. 오른쪽 성벽 뒤로는 동대문 성곽공원이 보입니다. 키 작은 꽃나무들과 경사진 잔디밭, 듽성한 나무와 바위들로 조경된 이 공원은 아래에서 보면 오르막 언덕일 뿐이지만 위에 올라 보면 동대문과 공원 정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야경 명소입니다.



12 흥인지문

흥인지문(興仁之門)은 한양도성의 8개 성문 중 가장 동쪽에 있는 문으로, 흔히 동대문이나 흥인문으로 불립니다. 흥인의 인(仁)은 오행 중 목(木)에 해당하며, 방위로는 동쪽을 가리킵니다. 한양도성 사대문의 나머지 문들과 달리 “지(之)”자가 들어간 이유는 지세를 보완하기 위한 풍수지리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인지문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이며, 태조 5년(1396)에 처음 세워진 후 고종 6년(1869)에 개축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송례문과 달리 조선 후기의 건축 양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인지문 앞에는 반달 모양의 성벽인 웅성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한양도성의 8개 성문 중 유일합니다.



안내문

안전을 위해 편안한 복장과 운동화를 준비해주세요. 화성행궁 순성길은 형형색색의 암벽들을 마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곽길이지만 경사가 심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성놀이 행사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과 양현재의 이름을 걸고 진행되는 만큼 행사 진행 중에 개별 행동은 삼가 주시고 진행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연락처 |

TA_고윤숙 010-2831-1899, 김월희 010-7279-5513, 제갈건 010-9697-1224

| 행사총괄 |

유학대학 학장 및 양현재 전재_신정근

| 기획 및 편집총괄 |

양현재 재감_강교회

| 홍보 |

유학대학 행정실_이준호, 양현재 TA_고윤숙, 김월희, 제갈건

| 자료제작 |

양현재 TA_고윤숙, 김월희, 제갈건

| 표지 붓글씨 |

김진희

성균관대학교 / 유학대학 / 養賢齋

